1분기 135개…혁신도시로 향하는 기업들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증가…나주 32개사 새로 입주
클러스터 용지분양도 82%…혁시도시 중 3번째로 높아

올해 1분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입주한 기업이 타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클러스터 용지분양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135개 기업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했다. 작년 하반기 입주 기업 수가 119개인 것과 비교해 최근 입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1분기(1~3월) 135개 기업이 새로 혁신도시에 입주해 전체 입주 기업 수는 828개로 늘었으며, 이는 직전 분기보다 19.5% 증가한 셈이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올해 1분기 32개 기업이 입주해 48개 기업이 입주한 경남혁신도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 22개사, 대구 20개사, 충북 9개사, 강원 4개사, 경북 3개사 순이었으며, 울산은 오히려 3개사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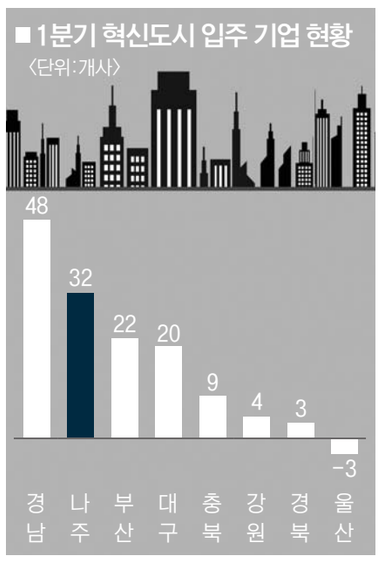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이전도 전국 9개사였는데, 빛가람혁신도시에는 3개사가 이전하면서 경북 2개사, 경남 1개사, 부산 1개사, 강원 1개사에 비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분양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모두 197만㎡로, 당초 계획(312만4000㎡)의 6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1분기까지 3000㎡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용지분양 계획상 84필지 41만5000㎡ 중 69필지 43만㎡가 분양돼 분양율 81.9%를 달성하게 됐다. 이는 경남 94.9%, 제주 86.8%에 이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분양율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35%인 68만9000㎡의 경우 실제 기업들이 입주까지 완료했으나, 빛가람혁신도시는 13개필지 60㎡만 집주해 입주율은 17.6%에 그쳤다. 향후 계획상 54개 필지, 25만6000㎡가 착공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클러스터 입주율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전기분야 80개 기업과 지식산업 52개 기업, 기타제조 72개 기업, 대학연구소 1개 등 총 205개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맞물려 지식산업센터 등의 준공에 따라 에너지 분야와 지식산업 분야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영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할 체계적인 시스템(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등 혁신도시 육성 전반을 컨트롤하는 구심점 조직으로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 또는 용지매입 이자 비용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aT, 장성비축기지에 헬기착륙장 조성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역할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aT 장성비축기지에 응급환자 이송, 국가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 등을 위한 헬기착륙장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aT는 지난해부터 장성비축기지에 주·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착륙장을 설치하기 위해 전남도 소방본부와 공동 현장실사를 추진해왔다. 지난 16일 소방헬기 시범 이착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남지역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고 도서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 대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우 aT 수급이사는 "장성비축기지는 근무자가 365일 상주해있어 다양한 지역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곳"이라며 "헬기착륙장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국가재난 발생 시 긴급물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콘텐츠업체 40% 프리랜서 고용
한콘진 '창의인력 실태조사'

콘텐츠 분야 사업체 중 약 40%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반면 계약서 작성 비율은 60%대에 그쳐 프리랜서가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인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일터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콘텐츠 분야의 고용 현황과 근로실태 등을 분석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콘텐츠분야 인력은 업무환경은 ▲높은 수준의 집중력 요구(3.94점, 5점 척도로 측정) ▲반복적 업무가 많은 편(3.61점) ▲대체인력 부족(3.33점)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3.27점)에 노출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콘텐츠 인력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는 ▲낮은 급여수준(56.7%) ▲직업의 경력개발 또는 발전 가능성 낮음(34.8%) ▲다른 분야로 이직(3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피해는 다큐방송(54.5%), 애니메이션(44.9%)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분야는 증지 도용이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율(27.3%)이 높았고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33.8%)'으로 인한 피해 경험율이 높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KISA, 호남 청소년 정보보호 인력 양성 나섰다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정보보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호남센터와 호남권 대학-고교가 연계해 청소년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호남권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의 우수 인재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고교생들에게 정보보호 분야 진로진학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

참여 동아리는 전남대학교 '정보보호119', 조선대학교 'Hacker Login', 전북대학교 'IS(Invisible Shield)' 등이다.

호남센터는 올해 시행되는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협력해 진행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보호 기본 이론 위주의 '일반교육(총 20회)'과 정보보호 실무 경험 확보를 위한 실습 위주의 '집중교육(총 3회)'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 수강생과 강사로 활동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학생들에게 취업 멘토링,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정보보호 통합관제실 견학, 정보보호 현장실습 등 취업 활동 연계를 위한 각종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KISA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생에게는 정보보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정보보호 교육을 제공해 지역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간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 청소년, 대학생, 기업이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ISA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컨설팅, 시큐어코딩 테스트베드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순신장군 리더십에서 청렴 배우다

한전 이정희 상임감사, 청렴리더십 특강

이정희〈사진〉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이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한 청렴 리더십 특강이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2일과 23일 한전 경북본부와 한국전력기술을 잇달아 방문해 '청렴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유비무환의 정신과 솔선수범, 낮은 자세의 소통, 인문학적 소양 등을 언급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삶의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두 번의 백의종군을 이겨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으로 무장하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전 경북본부는 넓은 관할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개폐기 등 전력 설비와 선로 관리상태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전력기술에서 펼친 강연에서는 강연 이후 직원들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상황극 공연을 관람하며 "갑질 근절은 상생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청렴특강을 펼쳐 한전본사와 지사, 전력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이날 현재까지 총 17차례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 대구본부 직원 강호승씨는 "편안함과 소탈함이 전해지는 말투에 재미와 배움이 녹아든 멋진 강연이었다"며 "폭넓은 지식과 오랜 기간 연구한 노력이 돋보이며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전 각 지사 직원들이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는 역사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깊은 연구, 삶의 연륜이 주는 여유와 소탈함 등을 강연에 녹여냈다는 반응의 글이 올라오는 등 이 상임감사위원의 특강이 수강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